

## 『 종로구의 경관 탐방 』

지리교육과 2학년 최보배

### ☞ 답사포인트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읍, 중심업무지구였던 종로구를 탐방해보자.
- 현재의 종로구와 과거의 종로구를 비교하며, 신구(新舊)가 공존하는 공간을 알아보자.

### 1. 세종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행사나, 퍼레이드, 행렬이 세종로를 지나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이곳은 서울시를 통과하는 자동차, 지하철 등 모든 교통이 지나가는 결절점이다.

권력의 거리, 문화의 거리, 경제 개발의 거리의 세종로 중심에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우뚝 서 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혹은 찬 바람이 거세도, 제아무리 햇볕이 짹짹 내리쬐도 그는 그저 담담하기만 하다. 한국의 상징 도로 세종로의 중심 위치에 서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다.



〈 세종로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 〉

출처: <http://100.naver.com>

일단 세종로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순신 동상이다. 위풍당당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걷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이순신 동상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과 감동을 주곤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이순신 동상을 보면, 이곳이 세종로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세종로의 이름을 보고나면 그곳에 왜 세종대왕 동상이 아니라 이순신의 동상이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처음 이순신 동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었다. 그러나 1960년 4월 19일, 그 혁명의 여파는 결코 이승만의 동상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승만 동상을 철거한 이후 그냥 두기는 썰렁해 보이고 무엇을 하나 세우고 싶긴 한데 가장 적합한 이가 세종대왕이 아니었을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이가 세종대왕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있던 자리는 세종

대왕이 잠시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충·효·예와 반공(反共)이 국시(國是)였던 1960년대 후반의 박정희 정권 시절, 세종로 한쪽 끝의 광화문을 시멘트로 복원한 박정희는 ‘문약한’ 세종대왕상을 이순신 동상으로 교체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세종로이다.

이순신 동상 외에도 경복궁 정문 양 옆에 있는 해태(海苔) 조각 또한 세종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강남구 테헤란로와 함께 가장 많은 사무실과 기업 본사가 들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종로이다.

길의 이름(路)으로 지형지물과 주소를 습관적으로 구분하는 서울사람들에게 세종로는 서울의 중심으로, 출퇴근, 혹은 약속시간이 다되어 어딘가로 가는 길이라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세종로의 평일과 주말 교통량이 그를 입증하며 사람들의 인식 또한 그러하다. 서울의 심장부인 이 세종로에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건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본사, 세종문화회관, 교보문고, KT본사, 정부청사 등의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건물들이 들어 서 있고, 경복궁과 광화문 등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또한 세종로사거리를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세종로사거리는 광화문네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 <읽을거리>

- 광화문 광장 공사 때문에 세종로가 휘어진다?



2006년 시작된 광화문 복원사업으로 인해 세종로의 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위 그림과 같이 목측으로도 10도에 가까운 오차가 나고 있어 만약 세종로의 축 변경을 시공하게 된다면 세종로에 위치한 모든 주요건물들이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광화문 복

원 후 광화문 광장이 생길 경우 상습정체구간인 세종로는 지금보다 더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게 된다. 야심차게 시작한 광화문 복원 사업은 민족의 얼을 잇는 대규모 사업이라 환영받고 있는 분위기 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종로 축 변경 때문에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그리하여 나온 계획안에 의하면 미국대사관과 문화 관광부가 이전하게 되고 도로는 그대로 둘 것이라고 한다. 세종로에 딸려있는 대형 건물들(정보통신부, 세종문화회관, 정부청사, 현대해상, 광화문빌딩, 동아일보사 사옥 등..)을 철거하고 도로의 축을 변형한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의 해체도 시민들의 인식이나 기타 비용문제, 가변차로나 차선변경과 신호체계 등의 문제, 유서 깊은 건물들을 해체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따라 축 변경을 무리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광화문만 원래 위치에 복원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위치하여, 우리나라 식민지배의 거점이 된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도 하며 1995년 총독부 건물 철거 장면이 방송전파를 타기도 하였다.

길이 600m, 왕복 16차선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졌으며, 큰길에 못지않게 그 사이에 존재하는 피맛골 내의 맛집과 아기자기한 가게들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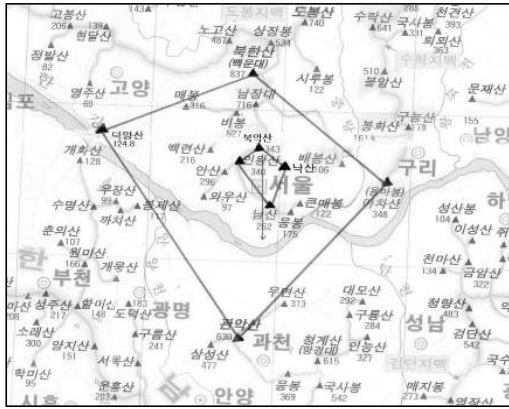
## 2. 경복궁

사적 제 117호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제 1궁 즉 정궐로서,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과 함께 서울에 존재하는 궁궐들 중 가장 큰 궁궐이며, 주소 또한 서울특별시 '세종로 1번지'에 빛나는 곳이다.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오며 태조 이성계가 풍수지리학에 근거하여 가장 먼저 잡은 성터이다. 한양의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북궐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자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복궁 근정전 남쪽의 모든 궁 전각들을 없애버렸고, 그런 까닭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는 근정전(勤政殿)을 비롯하여 회랑, 문루, 사정전, 수정전, 경회루, 자경전, 집경전, 경안당 등의 전각과, 남쪽의 광화문(光化門) 동쪽의 건춘문, 서쪽의 영추문, 북쪽의 신무문이 있다.

경복궁의 정문은 경복궁의 남쪽에 위치한 광화문이며, 광화문 또한 현재 종로구의 복원사업으로 옛 위엄을 되찾으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다. 조선시대 그 길고도 찬란했던 왕정, 조정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기도 하다. 사대문 내에 존재하는 궁궐들의 중심에 우뚝 서 있으며, 태조 이성계의 지리적 감각을 알 수 있다.

태조 이성계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 건설하게 된 경복궁은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야 국가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조정 대신들과 태조 이성계 덕분에 한양에 자리하게 되었다. 명당이라고 일컬어지는



〈 한양의 풍수지리학적 위치 〉

출처: <http://cafe.naver.com/psj119>

‘배산임수’의 지형을 찾아 한양은 북쪽에 북악산(면악산, 백악산)과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목면산(남산), 동쪽에 낙산(동대문 근처)이 둘러 싸여 있는 터를 말한다. 서울이 풍수지리학상으로 가장 좋은 명당이긴 하지만, 그 명당 안에서도 터를 고르고 골라 만든 곳이 바로 경복궁이다. 적 방어가 쉽고 농사가 잘되는 곳의 중심인 지형을 풍수지리사상에 근거하여 지금의 경복궁 터를 궁터로 낙점하였다.

경복궁을 찾으면 항상 재미있는 광경이 눈에 띈다. 앞에 서 있는 문지기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이나 가장행렬 등 역사를 재현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꽤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고, 관광 코스에 경복궁이 필수 코스로 끼어 있어 외국인들이 항상 넘쳐나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경복궁만큼 크고 웅장한 궁궐과 같은 시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비스런 동양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서양인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 할 수 있는 장소이자 동시에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점이기도 하다.

경복궁 내에 있는 누각인 경회루는 구권 일만원 지폐에 그려진 그림이었고, 그 외 교태전, 강녕전 등 역할에 따라 분류된 건물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최초에는 210개의 동이 었으나 역사의 풍파에 소실된 것들이 많아 현재는 10개 동 밖에 남아있지 않다.

경복궁 내부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 60주년 기념행사로 12월 까지 무료개방 중이다.



〈 경복궁 근정전 〉

출처 : <http://100.naver.com>

### 3. 인사동

인사동은 북촌과 종로 사이에 위치하여 주로 중인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으로, 조선 초기 이래로 조선 미술활동의 중심지로 형성된 곳이다. 인사동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불리기 시작했으며, 좁은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낡은 경관 들로부터 오래된 향기에 물씬 취해봄과 동시에 현대적 경관과의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 1) 인사동 거리

1930년대부터 고미술상과 서적관련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옛 정취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골동품상들도 함께 들어서며, 수집가들의 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골동품거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근대적 상업 화랑이 들어서면서 미술문화의 거리 성격이 강화되었다. 지금 인사동 길은 종로 2가에서 안국동 네거리까지이다. 수많은 아기자기한 소품가게를 비롯하여 6·25 전쟁이후 들어섰던 낙원시장과 낙원 떡 골목이 아직도 위치하며, 먹기 아까운 예쁜 떡들이 거리에 즐비하다.

많은 화랑과 문화회관이 자리하여 전시회들이 자주 열린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쌈지길’과 같은 현대적인 성격과 디자인을 지닌 건물들이 하나 둘 들어서며, 고풍스런 고미술상과 골동품상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전통 찻집 또한 많아 쇼핑에 지친 이들이 앉아 조용히 전통차를 마시며 보낼 수 있는 여유 또한 찾을 수 있다.

#### 2) 북촌한옥마을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한옥마을이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한옥 ‘마을’이 서울특별시 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며, 뿐만 아니라 유려한 기와의 디자인과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경관들에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경복궁과 창덕궁, 금원(비원) 사이 북악산 기슭에 있는 한옥 보존지구로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북촌이라고도 한다. 북촌은 고관대작들과 왕족, 사대부들이 모여서 거주해온 고급 살림집터로 한옥은 모두 조선시대의 기와집이다. 북촌한옥마을이 여태 유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지역에는 솟을대문<sup>1)</sup>이 있는 집

1)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지은 대문. 좌우의 행랑채보다 기둥을 훨씬 높이어 우뚝 솟게 짓는다.

몇 채와 30여 호의 한옥만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옥이 많이 지어졌고, 1992년 가회동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된 후, 1994년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일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총 2,297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1,408동이 한옥이고 나머지는 일반 건물이다.

일반건물의 범주에 속하는 빌라나 연립주택 등이 중간 중간에 높게 솟아올라 있다. 그리고 비록 한옥이라 해도 최신식 보안장비와 게이트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보면 묘한 아이러니 같으면서 잊고 있던 시간 감각이 돌아온다. 서울에서



〈북촌한옥마을의 오늘날〉

찾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려한 경관들 중 하나인 덕에 많은 사진작가들의 출사 장소로 쓰이기도 하며 실제 거주자들은 부유층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나 집 보안 장치를 보면 정부 관료들이나 외교관 또한 북촌한옥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가가 워낙 높은 곳이라 일반

서민이 북촌한옥마을에 들어와 한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해제 이후 서울 전역에 불어온 재개발 열풍에 이 곳 또한 편승하게 되어, 사라지고 있는 한옥들에 대한 논란이 많으며 이에 서울시는 한옥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울시가 북촌한옥 보존, 혹은 개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 하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지대하여 강남지역 부유층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구매의사를 밝히는 강남사람들이 많아져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옥마을의 주민들 일부가 강남지역 부유층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2007년부터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 4. 피맛골

종로(鐘路)에 있는 조선시대에 생성된 좁디 좁다란 골목길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은 피맛골은 현재도 옛 인심과 풍경을 간직한 시끌벅적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종로 1가에서 종로 6가까지 이어졌으나, 현재는 개발로 많이 줄어들어 종로 1가 교보문고 뒤쪽에서 종로 3가 사이에 일부가 남아 피맛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피맛골의 입구에는 안내표지판이 작게 자리 잡고 있으며, 본격적인 피맛골 길이 시작되면 사람 두 명이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미로 같은 길이 이어진다.

종로는 항상 높은 사람들의 교자나 가마가 지나다니는 큰 길이었다. 종로를 지

나던 서민들에게 말을 타고 종로 대로를 지나던 벼슬아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큰 길 뒤쪽에 말 한 마리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 평민들이 말이나 가마를 피해 다니던 길이란 뜻의 '피마(避馬)'에서 유래되었다. 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피맛골 주위에는 선술집·국밥집 등 술집과 음식점이 번창하였다.

피피죄한 골목풍경에 고등어 굽는 냄새를 비롯한 갖은 음식냄새와 매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몇 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음식 값과 그 푸짐한 양은 그 곳을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직 환영하고 있다.



〈사라지는 피맛골〉

목과 빈대떡 · 막걸리 명가가 모두 헐릴 예정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피맛골도 무너만 남아있을 뿐, ‘이전 안내’ 포스터를 내걸고 있는 옆 가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사라지고 있는 추억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과 상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1954년 모습을 나타낸 이래 54년 동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서민들의 신산고초(辛酸苦楚)와 함께 했던 피맛골은 자본주의 시장의 큰 틀 안에서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

### ☞ 생각해보기

- 북촌한옥 마을의 사례처럼 전통문화유산을 이용한 관광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자.
- 종로구와 중구처럼 오래된 CBD의 고질적 문제인 노후시설, 화재 등 자연재해 시 피해와 같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 참고문헌 〉

- 황창서 / 2008 / 2010 부동산 대 예측 / 원앤원북스
- 삼성출판사 편집부 / 2007 / 대한민국 웬만한 곳 다 있다 / 삼성출판사

## 〈 참고사이트 〉

- 종로구청 <http://jongno.seoul.go.kr>
- 중앙일보 <http://www Joins.com>
- 인사동사무소 <http://www.goinsadong.c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 북촌한옥마을, 서울관광안내소 <http://www.visitseoul.net>
- 경향닷컴 <http://news.khan.co.kr>